< 맺음말 >

다시, 0에서.

0은 ‘없음’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출발점이었습니다.

이 책의 여정 또한 그러했습니다.

전통적인 철학사나 고전을 반복하기보다는,

우리의 일상과 질문 속에서 동양철학의 본질을 새롭게 짚어보고자 했습니다.

다소 다른 접근법을 택했지만,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

부연 설명:

철학은 누군가에게 ‘가르침’이 아니라, ‘함께 생각하고 걸어가는 여정’입니다.

이 책이 여러분과 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길 희망합니다.

마침내 여정의 끝에서, 우리는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.

바로 ‘0’의 자리로.

어쩌면 그 자리는 지금 여러분 발 아래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.

부록

주요 인물 소개 (철학자 & 개념 중심)

노자(老子)

• 대표 저서: 『도덕경(道德經)』

• 핵심 개념: 무위자연(無爲自然), 도(道), 무(無)

• 한 줄 요약: “하지 않음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.” – 자연의 흐름에 따르며 존재의 본질을 통찰한 철학자.

공자(孔子)

• 대표 저서: 『논어(論語)』

• 핵심 개념: 인(仁), 예(禮), 충서(忠恕)

• 한 줄 요약: “군자는 조화를 추구하되 같아지려 하진 않는다.” –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도덕과 질서를 강조한 실천의 철학자.

장자(莊子)

• 대표 저서: 『장자(莊子)』

• 핵심 개념: 무위(無爲), 제물(齊物), 호접지몽

• 한 줄 요약: “나비가 꿈인가, 내가 꿈인가.” – 경계 없는 자유와 존재의 경이로움을 노래한 시적 철학자.

혜시(惠施)

• 사상 경향: 변명학 派 / 명가

• 핵심 개념: 분할, 모순, 역설

• 한 줄 요약: “천하는 무한하다. 그러나 그 무한도 나눌 수 있다.” – 존재의 경계를 논리적으로 추궁한 철학적 수학자.

개념 노트

• 道(도): 존재와 자연, 우주의 원리.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근원적 흐름.

• 無(무): 없음이자 모든 가능성의 공간. 정적이지 않고, 잠재적 에너지로 충만한 상태.

• 氣(기): 모든 존재의 에너지 흐름. 동양 사상에서의 생명력과 연결된 힘.

• 中庸(중용): 치우침 없이 중심을 잡는 것. 감정, 판단, 행동 모두에서의 조화와 절제.

• 無爲(무위): 인위적으로 하지 않음. 억지로 바꾸지 않음.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상태.